

중국의 국사 (연구/교과서)에 서술되는 동아시아

-13 세기 이후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세 역사사건을 예로-

북단대학 갈조광 (葛兆光)

「발표원고」

본고에서는 13-16 세기에 있어 동아시아에서 일어난 세 개의 역사사건, 즉 「몽고습래」(1274,1281), 「오에이의 역」(1419), 「임진정유의 역」(1592,1597)을 예로 나라별로 국사와 동아시아사의 차이를 논해본다. 만일 단순한 일국의 역사적 입장이나 시점에서 동아시아의 역사를 파악할 경우 「사각」이나 「맹점」이 종종 발생할 수 있다고 본고는 지적하고 싶다. 그 이유는 하나의 원중심 (나라) 으로 역사를 이야기할 경우 기술되는 역사는 중심과 주변이 있어 중심부는 밝게 보이지만 주변부는 때로 어렴풋이 보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주변의 역사가 반드시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다. 역사를 이야기할 경우 만일 어느정도 원중심이 있다면 몇개의 역사권이 형성되고 그 역사권이 교차하는 가운데 겹치는 부분도 상당히 보이게 된다. 이 겹치는 부분 역시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역사를 재평가하게 되는 가치를 지닐 것이다.

일국의 역사를 말할 경우 이같은 부분이 때로 간과되는데 동아시아사를 말할 경우 이 역사권이 겹치는 부분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키워드」 몽고습래 (蒙古襲來) · 응영의 역 (応永の役) · 임진정유의 역 (壬辰丁酉の役) · 국사 · 동아시아사

근세의 동아시아사 특히 13 세기 이후의 역사에 있어서 일련의 사건은 일국사에 있어 그 중요성이 각각 달라지지만 동아시아사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할 수도 있다.

이러한 사건들 중에 필자는 「몽고습래」(1274,1281), 「응영의 역」(1419), 「임진·정유의 역」(1592,1597)이라는 세 사건을 주제로 논의하고자 한다. 상술한 세 사건은 전부 동아시아 한중일 3 개국의 역사와 관련된 것으로 일국의 국사가 이러한 사건을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를 관찰하면 「국별사」와 「동아시아사」와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고 자국의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역사연구에 어떤 「사각」과 「맹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알수 있게 될 것이다.

이에 필자는 중국의 가장 대표적인 국사 저작인 ①전백찬의 『중국사강요』, ②범문란의 『중국통사』, ③곽말약의 『중국사강』, ④백수이 『중국통사』를 주된 연구대상으로 선택하고 중국대륙, 타이완, 홍콩에서 출판된 역사교과서를 참조해 중국의 통서류 저작물, 특히 역사교과서에 관해 간략한 분석을 하기로 한다.

「몽고습래」(문영·홍안의 역)은 일본의 역사에 있어 말할 것도 없이 제일 중대한 사건중의 하나이다. 가와조에 쇼지는 『몽고습래연구사론』 안에서 이 침입사건은 결과적으로 심각한 정복 또는 식민지가 되는 결과는 가져오지 않았지만, 일본인의 역사 기억에 강한 임팩트를 남겼다고 지적 했다. 따라서 이후의 일본의 역사문헌에는 관계회상과 상상 또는 묘사가 반복되었다¹⁾. 일본사 연구사의 대표자인 하라 가쓰로나 중국사 연구사의 대표인 나이토 고난 두사람 모두 이 사건은 일본역사에 있어

중요하다고 보고있다. 이들의 분석에 의하면 이 사건은 일본문화가 독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때부터 일본이 처음으로 「신국」으로 인식되고 일본인은 의식적으로 자국의 문화를 발전시켜 중국 중심의 「화이질서」에서 이탈해 이른바 일본형 「화이질서」를 형성한 것이다.

또한 13 세기에서 14 세기 걸쳐 고려에서도 몽고라는 요인은 그 역사에 중대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몽고의 조정을 받은 고려시대에 몽고의 일본 침략에 있어 고려는 그 전선기지가 되었다. 또한 몽고제국이 사방으로 진출할 때 고려인은 빈번하게 징병되고 고려여자는 몽고인을 위해 헌신을 요구받았다. 탐라라는 지역도 몽고인의 말을 기르는 목장이 되었다. 나아가 고려는 몽고에서 왕후를 맞이해야 했으며 사람들의 이름도 몽고화하고 관리도 몽고풍의 머리를 하는 등 나라 전반에 걸친 「몽고화」가 이루어졌다ⁱⁱ. 이처럼 조선사에 있어서도 몽고침입은 큰 역사사건인 것이다.

한편 중국의 역사 저작 안에서 몽고/원조는 「자국사」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상기와 같은 사건은 종종 「중외관계사」의 범주에 포함되었다. 즉 「자국」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웃나라에 대한 침략으로 인정하면서도 특이한 점은 중국의 역사 연구자가 몽원을 자국의 한왕조로 간주하면서 몽고와 일본, 고려와의 사이에 일어난 이러한 사건들을 「중외관계」의 범주에서 중요시하지는 않는 것 같다. 상술한 침략과 확장행위를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몽고제국」의 행위로 보면서 몽고인은 유라시아에 걸친 대제국을 수립했기 위해 이와같은 확장행동이 있었다는 이해이다.

총괄적으로 말하자면 이 사건은 중국의 역사서술 가운데 큰 사건은 아닌듯 하다. 단지 「중외관계」의 범주에서 일어난 미미한 사건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ⁱⁱⁱ. 상당히 간략한 서술에 지나지 않거나^{iv} 가끔 분석이 있어도 이해하기 난해한 논조가

흔재되어 있다 v.

2

이른바 「응영외구」(1419)는 일본측 표현이다. 14세기 후반 동아시아 정국은 전반에 걸쳐 중대한 변화를 맞이한다. 중국의 경우 원왕조와 명왕조가 교대하고 몽고 제국이 한민족의 왕조로 바뀌었다. 고려의 경우 고려가 조선으로 이행하고 이성계가 새로운 조선왕국을 세워 대명제국의 인정을 받았다. 일본의 경우 아시카가 요시미쓰가 분열 상태를 끝내고 통일을 실현해 명의 조공체제에 가입하려는 자세를 취했다. 명왕조 초기 특히 정권이 수립되고 얼마되지 않은 홍무조는 국제협조 전략을 확립하고 얼마간의 「원정하지 않는 나라」의 리스트를 만들어 동아시아 3국으로 이루어진 「국제」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다.

그러나 영락황제는 홍무조의 「국제협조」 정책을 바꾸어 안남에 병사를 동원하고 조선에 압력을 가했다. 한편 이성계와 아시카가 요시미쓰가 1408년에 서거함에 따라 일조 양측에 대한 정책에도 변화를 보였다. 후계자인 아시카가 요시모치는 부친의 전략을 바꾸었다. 아시카가 요시미쓰 시대의 온건한 외교방식은 일변해 조선에 대해서도 밀을 대하는 듯한 오만한 태도를 취했다 vi. 그러나 요시모치의 의도대로 일은 진행되지 않았다. 이조의 태종도 태도가 강경한 국왕으로 오히려 1419년 일본의 쓰시마에 대한 침공을 시작했다. 이것은 일본에서 「응영외구」라 불러 vii 일본 조야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 사건을 당시 「몽고습래」과 같은 절대적인 위기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 조선과 대명연합에 의해 일본이 양측에서 적의 공격을 받는 사태를 피하기 위해 일본은 어쩔수 없이 외교정책을 조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viii.

이해 12 월에 전쟁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본은 하카타 요라쿠지(요락사)의 승려 무애양예(무가이료게이)를 조선에 파견해 양국 관계는 겨우 완화되었다. 이 사건은 그 후 균형이 이루어진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재구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필자는 생각하고 있다.

어째서 이 사건이 동아시아사에 있어 대단히 중대한 사건이라 할 수 있는가. 사실상 이 사건의 배후에는 명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에의 출병은 말할것도 없이 명의 지지, 적어도 묵인이 있었을 것이다. 당시 명태종은 조선에 대해 조선의 당면의 용무는 왜구를 다스리는 것이라 했다. 주민을 연해부지역에서 내륙부로 이주시키는 한편 군대를 동원해 일본이 점령한 섬을 포위해 적을 섬멸하도록 명은 조선에 제안했다^{ix}. 명의 영락시기가 되자 명성조는 또한 명태종의 국제협조정책을 크게 바꾸어 대외강경책으로 전환했다. 조선으로부터 「일본이 전함을 제조해 중국을 침공하려 한다」는 정보를 받았기 때문으로 일본에 대한 불만도 고조되었다. 일본이 주원장의 화상을 표적으로 한다는 구실을 만들어 명성조는 「만척의 배를 파견해 정벌하겠다」고 위협했다^x. 후에 조선이 적극적으로 쓰시마를 무력 점거한 것도 이러한 사실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같은해(1419년) 6월 명의 총병(통수일지도 모름)유강이 요동반도의 망해어에 상륙한 왜구를 전멸시킨 것도 조선출병과 어느정도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xi}. 이러한 사실에서 일본은 조선의 쓰시마출병의 배후에 명의 영향이 있다고 경계했다.

응영의 난 이후 일본과 조선이 서로 타협한 것은 일본과 조선, 명을 포함한 동아시아 전반을 최종적이고 균형 잡힌 새로운 국제 국면으로 전환시킨 큰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중국의 역사 저작에 거의 기술되지 않고 있다^{xii}. 그러면 동아시아에 있어서 이러한 대사건이 어째서 중국의 역사 서술에 결여되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한다.

3

「임진의 역/문록의 역」(1592)과 그 후의 「정유의 역/경응의 역」(1597)은 상술한 몽고-일본, 일본-조선간에서 일어난 사건과 비교할 때 동아시아의 한중일 3 개국이 모두 전력을 다해 직접 참여했고 투입한 병력도 막대하다. 이 전쟁은 3 개국 어느 문헌이나 많은 기록이 남아있고 후세의 각종 국사에도 상세한 서술이 있다^{xiii}.

하지만 이 전쟁에 관한 호칭은 각각 다르다. 한국에서는 이것을 「임진왜란/정유재란」이라고 부른다. 일본에서는 이것을 「문록의 역 /경응의 역」이라고 부른다. 중국에서는 이것을 「만력동정 /항왜원조」라고 부른다. 호칭이 다른 배후에서 각각의 입장에 관한 분명한 차이를 볼 수 있다. 각국의 역사문헌에 남아있는 기재 외에 현대의 역사서술도 각각 다르다. 중국의 역사저작에서는 도요도미 히데요시의 출병을 야심 팽창의 결과로 동아시아에서 대제국을 수립하려고 하는 「침략」으로 보고 있다^{xiv}. 이러한 점에서 말하자면 조선과 중국의 역사저작은 거의 동일한데 일본조차 「침략」은 부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전쟁에 관한 묘사에 있어 각국은 자국의 역사 문헌에 근거해 입장을 달리해 동일한 「임진의 역」에 관한 서술에서도 미묘한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일본의 경우 임진의 역에 있어서 조선의 타협과 일본의 강경함을 부각시키고 있다.

일본측이 내놓은 강화 조건은 ①명황제의 딸은 천황과 결혼해 일종의 「화친」 관계를 맺을 것, ②명은 일본과 감합무역을 할 것, ③ 조선 남부를 일본에 할양할 것이라 전한다^{xv}. 서둘러 강화하려는 고니시 유키나가도 당시 상술한 의사를

충분히 전하지 않아 1596년에 승자의 기분이 된 명이 일본에 사신을 파견해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일본왕」으로 봉하고 일본의 조공을 허용한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한다. 이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격분해 2 회째 전쟁 (1597-98)을 일으켰다고 한다^{xvi}. 이것과 비교해 중국측의 기술에서는 그러한 내용이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 오히려 중국 통사류의 저작에는 단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임진의 역이 실패한 것은 「야망을 버리지 않고 권토중래를 위해 일부러 명에 강화를 요구하고, 명의 철병을 노려 새로운 공격을 준비」한 것으로 서술한다. 명도 타협함으로써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함정에 걸려 수세로 돌아서 버렸다」^{xvii}고 본다.

언급할 필요도 없이 현대에 있어 일국의 역사 저작은 (나라의)자존심 때문에 각각 자신이 강조하고자 하는 일면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의 역사 저작처럼 중국의 원군이 조선의 운명을 구해낸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명의 원군(조선도 포함해서)의 일본에 대한 승리도 과장하고 있다.

4

만일 우리들이 국가/왕조의 입장을 초월해 동아시아사의 관점과 동아시아 전체의 시각에서 상기의 세 역사 사건을 다시 보면 이하 두가지 점에서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①몽원의 일본침략 (또는 고려를 종속국으로 한 것)은 동아시아의 정치국면에 변화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문화의 면에 있어서도 각국이 자아 의식을 환기하는 계기가 되어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한다」는 풍조가 존속하지 않게 되었다. 정치적으로는 조공 또는 책봉체제, 문화적으로는 한·당·송 등의 중국을 배우거나 모방하는 풍조가 점차 변화하고 정치상의 자국중심주의와 문화상의

독립의식이 싹트었다. ② 「응영의 역」의 발생과 그 해결은 동아시아 3 개국 사이에 다시 균형을 이루는 관계를 가져와 그후 백년, 수백년 간 동아시아 국가관계의 안정을 가져왔다. 조선의 「사대주의」를 축으로 명과 조선 사이는 「조천」을 통해 조공체계를 계속하는 한편 일본과 조선사이에는 「통신」을 통해 대등한 국가외교를 유지했다. 여기에 육로와 항로 양쪽 무역도 가세해 명청 중국, 이조 조선, 번징 일본사이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시기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오랜 기간 균형을 유지했다. 서양인이 동양으로 진출하기 전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동아시아 국제질서가 이어졌다. 이러한 가운데 「임진의 역」의 발생은 그때까지의 안정된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크게 흔들었고, 그 후에 동아시아가 공유하는 아이덴티티 붕괴의 복선이 되었다. 그러나 당시 이 사건은 신속히 수습되어 동아시아 세계 역시 「임진/정유의 역」 이후 구축된 국제국면으로 돌아왔다. 상술한 것처럼 그 국면은 19 세기 서양 제국이 무력을 배경으로 동양에 진출해 동아시아를 구미가 주도하는 새로운 글로벌질서로 갖고 갈때까지 이어졌다.

만일 역사학자가 단지 자국의 입장을 고수해 시야를 현대국가의 국경선으로 한정해 지역의 연동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경우 역사에는 반드시 「사각」이나 「맹점」이 발생한다. 중국의 역사저작은 몽원의 일본침략과 고려지배가 단지 몽고인/몽원왕조의 세계지배 야심의 결과에 지나지 않고 조선의 쓰시마 침공도 단순히 이웃나라끼리의 분쟁이라 주장한다. 「임진/정유의 역」에 이르러서는 일본은 침략자이며 중국은 조선의 국제적인 친구로 양국이 손을 잡고 일본침략군을 패배시켰다고 명언한다. 그러나 만일 역사학자가 위와 같은 화제를 동아시아사의 시야 속에서 다시 생각할 경우 새로운 인식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아무튼 동아시아사와 국별사의 차이에서 역사의 서술이 만일 하나의 원중심

(나라)만 있다고 한다면 그 서술은 반드시 중심과 주변이 있고 중심이 강조되어 주변은 항상 흐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역사학자가 만일 초점을 늘 중심에 두게 되면 주변을 종종 망각하거나 버리게 된다. 그러나 역사의 서술에 몇개의 원중심이 있다고 보고 수개의 역사권을 설정하면 이들 역사권이 교차하는 곳에 몇개의 겹쳐지는 부분이 보인다. 동아시아사는 수개의 역사권의 교차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몇년전 필자는 「주변에서 중국을 본다」고 제언했다. 사실은 「주변에서 일본을 본다」 「주변에서 한국을 본다」 「주변에서 몽고를 본다」고도 역설하고 있다. 현재 필자는 오히려 「아시아 속의 중국사」를 써야 한다고 강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들이 교차하는 「주변」에서부터 역사를 생각하는 확대한 「아시아」 속에서 역사를 다시 고찰하는 것을 절실히 원하고 있다. 이경우 여러가지 다른 풍경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한명의 역사학자로서 역사가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은 (왜냐하면 저작이라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현장에서 역사를 상상하고 현재의 국가 국경선(현대국가의 국경선은 후에 형성됨)을 초월해 넓은 시야로 역사를 관찰해야 할 것이다. 만일 지금의 국경선을 고수해 고대의 얽힌 역사를 거슬러 고찰할 경우 흔히 고정된 또는 고착된 「중심-주변」의 역사구도가 되어 버리고 「주변」도 잊혀지게 된다. 지금의 「주변」은 당시의 「중심」일 지도 모른다. 따라서 자국 중심의 역사 서술은 정치-문화의 가치관의 역사적 차이로 인해 역사평가에 있어 편협한 것이 되기 쉽다.

2016년 7월

(日本語から韓国語訳：金範洙)

ⁱ 川添『蒙古襲来研究史論』(東京雄山閣、1977)は蒙古襲来という事件が日本に残した深刻な影響について詳しく論じられた。その研究によると、早くも1293年前後既に肥後国武士竹崎季

長の武功を描いた『蒙古襲来絵詞』（京都東山御文庫蔵、二巻）」がある。その後の江戸時代、臨濟宗僧侶の瑞溪周鳳の『善隣国宝記』（1470年増補）、儒医の松下見林の『異称日本伝』（上中下三巻、1688年の自序あり）、津山元順（？～1784）の『蒙古襲来記』及びその養子の津山元貫（1734～1815）の『参考蒙古入寇記』などがその事件についての記載がある。その以降、更にさまざまな関係書籍が、例えば『元寇始末』『蒙古寇記』『蒙古諸軍記弁異』『元寇記略』などが出版された。

ii 宮崎市定が言うように、「中世以降、朝鮮が最も外国化された時代はこの時（高麗忠烈王以後）である」。宮崎市定『中国史』（中国語訳、浙江人民出版社、2015年）第三篇「近世史」の三「元」、237頁；辛顯王時代（1376年、明王朝成立してからも8年目）になっても、高麗は依然として北元の年号「宣光」を使い、使者を北元へ派遣した。同時の高麗では、「町の中には蒙古風の服（胡服）や髪形をしている人は既に多くなった。」明王朝の使者が来る時、当局は慌しく「胡服」の禁止令を出し、「明の制度により百官冠服を定められた。」吳晗が整理した『李朝実録の中の明清に関する資料』第一冊、76－79頁。

iii 翦伯贊の『中国史綱要』（北京大学出版社、増補本、2006）下449頁、「元朝対外関係」を語る場合、「元世祖の時、数度兵を挙げて近隣国家へ侵入した」、「元十一年（1274）、十八年二度と日本へ出兵」という表現しかない。また、『中国史稿』（人民出版社、1983）では、400字の叙述があるものの、「元三年から元十年に、前後五回使者を派遣して日本の来朝を勧誘したが、何れも日本政府より返答を拒絶された。」という表現があった。二回の戦役について叙述はしたが、特に分析などはしていなかった。範文瀾の『中国通史簡編』（河北教育出版社、2000年増刷）下には、「日本東征」の事件に殆ど触れなかった。今日に至っても、最新の各種の歴史著作、例えば李学勤・郭志坤編著した「中国歴史詳述叢書」の中の温海清著の『元史』（上海人民出版社、2015）もこの事件を無視している。

iv 対照的に、西洋の学者、例えば Timothy Brook が元明の歴史を書く場合、「蒙古来襲」の意義を取り立てている。Timothy Brook: *The Troubled Empire: China in the Yuan and Ming Dynasties*, “History of Imperial China 5”, Harvard University Press, 2013.

v 例えば早期出版のある有名な中国歴史教科書、即ち繆鳳林の『中国通史要略』（南京鐘山書局、1933、商務印書館、1946）の第八章には、この二回の戦役を通して「日本人は蒙古兵の武威を震え、その後ことなし云々」。116頁。

vi たとえば、朝鮮に対して「国王」を使用せず、「征夷大將軍」と自称し、国書にもただ「日本国源義持」と記し、つまり日本の大將軍は朝鮮国王とは対等な関係であると示し、更に日本への朝鮮国書に明の「永楽」年号を使用することに不満を漏らす。もし、朝鮮が自国を明の従属国に下げたら、日本も同様に明の従属国に下げられてしまったのではないかと足利義持が思う。

vii 朝鮮の太宗は対馬襲撃を通して倭寇問題を根本的に解決しようと思ったらしい。戦争中、双方の死傷者は3800人になり、対馬藩の若い藩主が朝鮮に講和を申し出た。朝鮮は対馬を慶尚道の版図に入れ、対馬の住民も巨済島へ移動させた。

viii 「蒙古来襲」の記憶がまだ強く残っているためか、日本は依然として中国へ高い警戒心を持つ。李朝朝鮮の『世宗実録』卷十（1420年）に使者団の通事尹仁甫の「復命書」が収録される。その中に「臣等初到其国、待之甚薄、不许入国都。馆于深修庵。……继有僧惠珙来问曰：闻大明将伐日本、信否？答曰：不知也。珙曰：朝鲜与大明同心也、何故不知。先是、大明使宦者敕曰：若不臣服、与朝鲜讨之。继而使者畏害而逃、故疑而问之」という文言があった。

ix , 故疑而问之”。

ix 吴晗辑《朝鲜李朝实录中的中国史料》（北京：中华书局，1962）第一冊，洪武二十年（1387），73-74頁。

x 同上，第一冊，永乐十一年（1413），255頁；永乐十四年（1416），265頁。

xi 这一年（永乐十七年，1419）六月，明朝与日本之间也出现冲突。《明史》卷三二二《外国二・日本》中记载较详细，“倭船入王家山岛，都督刘荣率精兵疾驰入望海埭，贼数千人分乘二十舟，直抵马雄岛，进围望海埭。荣发伏出战，奇兵断其归路。贼奔樱桃园，荣合兵攻之，斩首七百四十二，生擒八百五十七”。8346頁；《明实录》中，“都督刘荣”作“都督刘江”，说“辽东总兵官中军都督刘江以捕倭捷闻”，在望海埭“擒戮尽绝，生获百十三人，斩首千余级”，《明太宗实录》卷二百十三，2141-2143頁。又，可以参看明代严

从简《殊域周咨录》中的“日本”部分。

^{xii} 郭沫若、翦伯赞、范文澜の著作にこの事件についての叙述は皆無である。殆どの中国の歴史著作はこの事件を無視する。

^{xiii} 中文论著最详细的研究是：李光涛《朝鲜“壬辰倭祸”研究》（中央研究院历史语言研究所专刊之六十一，台北，中央研究院史语所，1972）。日文论著方面，可以参考：石原道博《文禄、庆長の役》（东京：塙书房，1963）；因为不懂韩文，我仅参考了已经译为中文的崔官《壬辰倭乱——四百年前的朝鲜战争》（金锦善、魏大海中译本，北京：中国社会科学出版社，2013），但此书主要讨论壬辰之役的影响，尤其是在日韩文化与文学中的影响。

^{xiv} 翦伯赞《中国史纲要》下册 531-532 页，对此有近千字记载，但主要说的是（1）丰臣秀吉侵略朝鲜，进一步侵略中国，（2）1593 年打败日军最精锐的小西行长军队，收复平壤与开城，日军退守釜山，（3）石星妥协求和平，1597 年日军再度入侵，（4）丰臣秀吉死，日军于朝鲜南海被灭，战争胜利。结论是“日本侵略朝鲜战争的失败，主要是由于朝鲜人民的坚持抗战，而明军的两次援助，也起了重大的作用”（532 页）。郭沫若《中国史稿》第六册，572-578 页。主要根据吴晗《史料》、《明史》、《明史纪事本末》等中朝文献，对整个过程做了更加详细的记录，对于第一次援助朝鲜，与翦伯赞书不同的是，承认只是“形成对峙局面”。但是此书基本不用日本史料，偶尔使用日本方面的论著如林泰辅《朝鲜通史》，还误以为林为朝鲜人。

^{xv} 这一点在历史资料中就已经有差异了。如万历二十四年（日本庆长元年，1596），明朝派正使杨方亨、副使沈惟敬，赴日本大阪见到丰臣秀吉，据日本文献记载，丰臣秀吉曾经提出“七条”苛刻要求。但在明朝记载中，却似乎是日本求和，明朝居高临下，让日本从釜山退兵，不得再侵略朝鲜，册封日本国王之后，再谈互市问题，对照之下，与丰臣秀吉的“七条”差别太大。以上可参考《明神宗实录》、宋应昌《经略复国要编》、诸葛元声《两朝平壤录》等。

^{xvi} 参看佐藤信等《（改订版）详说日本史研究》（山川出版社，2012），234 页。

^{xvii} 翦伯赞《中国史纲要》（下），552 页。